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1(土)	12(日)
 맑음 13/21℃	 구름 조금 9/23℃

News

- 고속도 예산 호남 출대 ②
- 전남대 지역언어 토크쇼 ③
- 광주·전남 순조로운 출발 ⑧

Books

- '민생단' 사건 소설로 ⑭

Entertainment

- 개그맨 잇단 가수 데뷔 ⑧



- 한일 배우 스크린 랑데부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문어 ⑬



동양지축은행 226-0180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수십억 들여 만든 해남 조류 전시관·조각공원

관람객들 외면 애물단지 전략

접근성 떨어지고 전시품 조잡 수년째 방치...예산 낭비 지적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남 땅끝 조각공원 전시관과 우항리 조류 전시관(사진)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에 따라 21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설 재단장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월 18억 5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우항리 조류 전시관이 관람객들의 외면으로 휴업중이다.

당시 고천암과 금호호에 서식하는 철새의 생태 관광을 목적으로 건립했지만, 방문객의 이용률이 극히 미미해 재단장을 준비중이다.

군은 생태관 내 전시품이 조잡하고, 관람객의 시설물 이용 등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조류 전시관과 생태체험장을 증축한 뒤 내년 2월 말에 재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시설 보안만으로 관람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는 조류 전시관이 고천암호와 동떨어진 우항리 공룡 박물관 인근에 위치해 고천암의 명물인 가장오리떼의 군무 등

의 관람이 불가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해 관람객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애초 설계 당시 위치 선정부터 잘못했다는 비난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연중 가장 오리떼의 군무를 볼 수 있는 영상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 조각공원도 우항리 조류 전시관과 함께 해남군의 대표적 예산 낭비 시설로 지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3년 26억 원(국비 2억, 도비 3억, 군비 21억)의 예산을 투입해 3만9천㎡의 부지에 378㎡ 규모의 땅끝 조각공원을 조성했지만, 관람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조각공원 내 전시관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람객이 없다 보니 시설물을 관리할 상주 인력이 없고, 주·야간 근무를 위해 만들어진 관리실도 비어 있다.

군은 최근 전시실 내에 해남관광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관람객은 전무한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물을 재 단장하고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연계해 관람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개막 축포 대신 물 축포가 쏟아 울려지고 있다. 이번 전남 체전은 친환경 체전으로 개회식에서 불꽃놀이와 축포 등을 생략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체전 여수서 광파르...열전 돌입

李대통령 "은 국민 힘모아 경제난 극복을"

국내 최대의 스포츠 잔치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10일 친환경 녹색의 땅 여수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각 시·도지사와 16개 시·

도 선수, 임원이 참석했으며 2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대회 열기를 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념사에서 이번 체전 개최를 위해 힘쓴 지역주민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해 화합하고 단결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당부했다. /여수=최재호기자 lion@

금융시장 대혼란

코스피 장중 1,200선 붕괴 환율 하루 변동폭 235원

정부 "G20서 中·日과 협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 폭락의 여파로 장중 1,2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이날 하루 235원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3.42포인트(4.13%) 급락한 1,241.47로 마감됐다.

이는 2006년 7월19일 이후 2년3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장중 한때 1,178.51(-8.99%)까지 떨어져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코스닥지수도 19.56포인트(5.29%) 떨어진 350.28로 마감됐다.

또 코스피시장에서는 개장 후 6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닥시장에서도 올 들어 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돼 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도쿄증시는 닛케이평균지수가 881.06포인트(9.62%) 급락한 8,276.43으로 마감돼 5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도 전날보다 3.57% 하락한 2,000.57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70.50원 떨어진 1,309.00원으로 마감됐다. 또 이날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35.00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30일(495.00원)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경제상황점검회를 열고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선진 8개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되는 G20 회의와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

는 등 다자간, 지역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증권사 시장단도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증권유관기관들의 4천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 증권사로 스켓(손절매) 규정의 탄력적 운영 등 증시안정방안에 합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북지구 M대우 5층
070-8201-1274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5370-9318